광주일보사·광주전남중기청 선정 '2013 상반기 우수 중소기업인상'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6일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 상반기 우수 중소기업인' 5명에 대해 시상했다. 상반기 우수 중소기업인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인은 이미란 ㈜그린전자 대표와 황대영 ㈜인포데이타 대표, 장정오 ㈜제우텍 대표, 노중현 ㈜청산뉴미디어 대표, 편태일 ㈜태선테크 대표 등 5명이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수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군으로 일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분위기에서 우수 기업은 고용창출에 힘쓰는 기업"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술개발과 고용 증대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6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주최한 '2013 상반기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광주·전남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전제품용 PCB 제조 자체 기술로 제조원가 낮춰

(주)그린전자

이미란 대표

장성의 ㈜그린전자는 가전제품용 PCB(인쇄배선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을 제조하는 업체로,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다. 가전제품용 컨트롤러의 생산 전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갖췄으며 발주처가 원하는 제품을 신속·정확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타사대비 제조원가가 15% 이상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또 공정관리를 통해 평균 10% 이상 불량률이 낮은 것도 우수한 품질경쟁력의 원동력이다. 최근에는 3년간 10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지난 2009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를 획득했으며 지난해 ISO 9001 : 14001 품질인증도 받았다. 올해에는 세탁기와 온수장판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자체개발하고 있다.

전국 평생학습센터 80% 시설 구축·콘텐츠 제공

(주)인포데이타

황대영 대표

광주와 서울에 사무실을 둔 ㈜인포데이타는 IT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는 광주지역에서 지난 2000년 중소기업청 타당성 검토를 통해 회사를 설립했다.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및 솔루션을 제작하고, 전국 80%의 평생학습센터를 구축·유지보수하는 업체다. 전국의 시·군·구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 데 공헌했으며 지역 IT인재를 발굴,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2010년 매출 9억 원에서 지난해 16억 원, 올해는 5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 13명이었던 직원은 2012년 24명, 올해 55명으로 매년 매출과 고용창출부분에서 200% 신장을 이어가고 있다.

KT 축전지 함체 수주 사업 다각화 작년 100억 매출

(주)제우텍

장정오 대표

광주의 ㈜제우텍은 지난 2003년 기업 '제우'를 설립한 뒤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 물류용 파레트(깔판) 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농업용 기계 및 쌀국수 제조기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최근에는 통신용 철 자재 생산 및 납품을 시작했고, 조경사업과 잡철물공사, LED조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에 도전, KT LTE 축전지 함체 수주에 성공했다.

기업 매출은 지난 2011년 6억1500만원에서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KT LTE 축전지 함체 납품으로 지난해와 같은 매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가급 차세대 이동통신망(5G)용 정류기와 축전지 함체 개발에도 나서 해외판로 개척도 준비중이다.

닥터위콤 반복어학기 개발 학교 CCTV도 직접 생산

(주)청산뉴미디어

노중현 대표

㈜청산뉴미디어는 지난 1994년 광주에서 창업, 외국어 교육에 쓰이는 '닥터위콤'이라는 반복어학기를 개발했다. 각 교육기관에 보급해 원어민 발음을 습득하는 교육장비로 명성을 얻었으며 지난 1997년에는 정보통신업면허를 획득했다. 칸막이 어학실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는 시설공사를 착안·시공하기도 했다. 모든 외국어 수업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광주·전남지역 학교 어학실을 바꿨다.

'고객은 1등만 기억한다'는 신념 아래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KOBA 전시회 및 기술 세미나에 전직원을 참여시켜 신기술 도입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직접 생산, 각 교육기관에 CCTV를 설치해 학교폭력예방 사업에도 나섰다.

냉장고·에어컨 부품 생산 최근 3년 매출 급상승

(주)태선테크

편태일 대표

광주의 ㈜태선테크는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등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30년간 끊임없는 기술을 개발한 대표적 대기업 협력업체다. 아르네코리아, 동양정공 등 고정거래처에 안정적인 납품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4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다수의 기술 인증 획득으로 경쟁업체 대비 비교우위에 있으며 지난 2010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를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획득했으며 ISO 9001 : 2000 품질인증획득한 기업이다.

매출은 지난 2010년 27억8900만 원에서 2011년 31억9800만 원, 지난해 44억68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광주상의 "상품거래소 광주에"

청와대·국회에 건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를 중심으로 한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추진위원회'가 26일 상품(금)거래소 광주 설립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는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거래 시장을 우선 개설할 예정이어서 상품거래소 유치에 힘쓴 지역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거래소 광주설립으로 서울의 증권거래소, 부산의 금융선물거래소와 금융 3각 축을 형성함으로써 금융분야의 지역 균형발전과 정부의 신뢰 회복 도모 등 지역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한국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국선물거래소 부산설립 공약도 이행됐다"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공약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아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2014년 정부예산에 금시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국비 70억원) 반영과 한국거래소 정관에 일반상품시장부 소재지를 '광주'로 명기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계 각국 금리 줄줄이 급등

美양적완화 축소 후폭풍 저금리 시대 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물론 신흥시장, 재정위험국까지 전 세계 각국의 금리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자취를 감추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시대는 종말을 고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영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1일에만 해도 연 1.63% 수준이었으나 5월 말엔 2%대로 상승(연 2.13%)했고 24일엔 연 2.54%까지 급등했다. 이런 금리 급등은 미국 경기의 호전 추세가 확연해지면서 연준이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말 연 2.06%에서 연 2.33%로 상승한 데 이어 24일엔 연 2.49%로 올랐다. 한국에서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달 말 연 3.12%에서 24일엔 연 3.68%까지 오른 상태다.

특히 이런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의미가 없어졌으며 나아가 저금리시대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체제 도입…적자 노선 일부 민간에 개방

철도산업 발전방안

정부가 민영화 논란 속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올해 안에 세워 2015년 6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수서발 KTX 운영사의 자본금은 잠정적으로 3000억원이지만 차량을 임대하거나 아웃소싱 방식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1000억원대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회사의 철도요금을 초기에는 서울·용산발에 비해 10% 정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뀐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맡게 된다.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 노선에는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783.45 (+2.82)	▲ 493.07(+12.11)	▼ 2.97% (-0.05)	▼ 1154.50원 (-5.70)